

익산몰 설 기획전 ‘대성공’

마을전자상거래 설 기획전 매출 2억2000만원 달성… 전년 대비 28% 증가

익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진행한 ‘익산몰 마을전자상거래 기획전’이 대성공을 이뤘다. 익산시는 지난 1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 간 열린 ‘마을전자상거래 설맞이 기획전’에서 7,715건을 팔며 2억2,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기획전 매출 1억7,200만원 보다 28% 늘어난 수치다. 시는 ‘농가는 재고를 받고, 소비자는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준다’를 목표로 명절 특별 기획전을 준비했다. 시는 마을전자상거래 누리집인 익산몰(iksanmall.com) 회원에게 구매액의 5%를 포인트로 제공했다.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 20% 할인 쿠폰과 무료 배송 혜택이 더해졌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사과,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인 배, 지역 특산품인 고구마가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사과·배’와 ‘천혜향·탐라향’, ‘사과·배·탐라향’ 등 마을전자상거래 전용 선물박스를 활용한 혼합상품도 큰 인기를 끌었다. 익산몰은 익산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생산은 농민이, 판매는 익산시가’라는 가치를 내걸고 지역 농수산물 고령농에게 인터넷 판매와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산지에서 직송하는 신선한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농민 뿐 아니라 소비자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익산몰은 올해 매출 43억원 달성을 목표로 △농가 대상 품질관리 교육 △제철 농산물 판매 기획전 △라이브쇼 핑 △명절 기획전 △어려운 농가 돕기 기획전 등 다양한 기획 판매를 추진한다. 시는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점농가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장은 “이번 설에도 마을전자상거래를 이용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익산의 신선한 농산물을 가족들과 함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쾌적하고 깨끗한 도로환경 만든다

연간 사업비 20억 투입키로… 시내일원 도로 포장상태 점검·보수

군산시가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내 4차선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예산 20억 원을 투입해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요 도로 구간 정비를 실시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2025년 새만금 국제마라톤 대회 노선 도로 정비 △공단대로 등 주요 도로 재포장 사업 설계구간 △강임준 군산시장의 지시한 시내 일원 노후 불량 도로포장 상태 점검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도로에 대한 주요 민원으로 드



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항은 △정자선 앞 차량 정차로

인한 소성변형 발생 △겨울철 제설 및 노후도로 거북등 갈라짐과 포트홀 발생 △굴착공사 등 부분 보수로 인한 부동침하(도로 각 부분에서 불균일한 침하가 생기는 현상) 등이었다. 이에 군산시는 기존 도로를 5cm 정도 절삭 한 후 표면에 아스콘을 덧씌워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각 도로 별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와 특성에 맞는 재료를 현장에 적용해 추후 발생할지 모를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응하기로 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봄철이 다가오면서 도로 보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라면서 “이번 공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도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산업단지 수질오염 예방 나서

산단 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공사 나서… 사업비 295억 투입

익산시가 산업단지 인근 하천의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완충 저류시설 설치 공사에 본격 나선다. 익산시는 올해 금강동 폐수처리장 인근 사유지에 제1국가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착공한다고 4일 밝혔다. 완충저류시설은 초기 강우나 화학사고 발생 시 산업단지에서 유출되는 유해화학물질과 소화수를 임시 저장한 후 폐수처리장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유해물질이 하천으로 곧바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해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앞서 시는 2022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하반기에 해당 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선정했다. 시설은 제1국가산업단지 우수관에서부터 1.13km의 차집관로를 신설해 총

4,700톤의 오염수를 저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시는 총 295억원(국비 20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내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1차년도 공사비 100억원(국비 70%)을 투입해 차집시설과 차집관로 설치 공사를 추진한다. 내년에는 완충저류조 설치 후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학사고는 예방이 최선이지만, 수질 오염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안전장치인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내년까지 이어지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미취업 청년 구직 활동 지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 320명 모집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월 50만원 씩 최대 6개월

익산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한다. 익산시는 오는 28일까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 320명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8~39세 미취업 청년(1985~2006년 출생자)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소득 판정기준)여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북청년 함께 도전 카드’를 발급받아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포인트를 지원받는다. 포인트는 취업 목적의 학원·인터넷 강의 수강료, 재료비, 자격증 접수비,

면접활동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 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면 5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누리집(http://joyouth.ezwel.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시는 다음달 31일 최종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지어 기업일자리과장은 “미취업 청년들이 청년활력수당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총 292명 모집… 28일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

4일 군산시는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 활동을 원활히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구직지원금을 제공하는 ‘2025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에도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에 261명의 미취업 청년을 선발했으며, 복지포인트 방식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비를 지급했다. 올해 사업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모집 인원은 292명으로 작년보다 30여 명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시인 미취업 청년(18~39세)으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세전)가 130만7,410원 이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없

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혜택을 받았거나 동일유형(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원금은 교제 구입비, 면접활동비, 학원 수강료 등 구직활동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은 시스템에 등록된 카드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 후 시스템에서 승인 신청하거나 온라인 매장에서 사용 후 시스템에서 차감 신청하는 방식이다. 희망자는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http://joyouth.ezwel.com)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 누리집에 접속하여 참가 자격 확인 후 증명서류를 첨부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 까지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도시가스시설 설치지원 접수

공급관 설치비용의 80% 지원… 28일까지 신청

익산시가 시민의 난방비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독·다세대·연립 주택 등 약 40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용의 80% 한도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신청 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회사인 전북에너지서비스(주)가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5월 중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은 지난 3일 모현동 선화로 23길 민원 현장을 방문했다.

박철원 시의원 “상습정체 개선 위해 가감속차선 필요”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은 지난 3일 익산시 관계자와 함께 모현동 선화로 민원현장을 방문해 출·퇴근시간 상습 정체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을 직접 살펴보고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췄다. 이날 찾은 민원 현장은 모현대교에서 선화로23길 모현이화아파트 방향 우회전 진입로로 직각보다도 더 꺾인 형태 때문에 우회전 시 급감속과 이로 인한 정체가 불가피해 잠재적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박철원 의원은 “해당 구역은 교통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출·퇴근시간 상습정체구역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진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가감속차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가감속차선 확보를 위해서는 전주, 전선, 통신선, 교통 제어장치 등 지상 시설의 지중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해당지역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중화 사업과 가감속 차로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도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가감속 차로가 생긴다면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이 결정되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설계비와 공사비 등의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